제 17 강 불교 철학의 분화

1. 나가르주나의 공(空)과 바수반두의 유식(唯識)

1) 나가르주나,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지혜

◇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존재를 나는 무(=空)라고 말한다. 또 가명이라고도 하고 또 중도의 의미이다.
衆因緣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중론(中論)』24.18
◇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존재는 공 아닌 것이 없다.
未曾有一法 不從因緣生 是故一切法 無不是空者.-『중론(中論)』24.19

→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 150?~250?)에게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空)이다. 어떤 것이 공하다는 것은 그것에게 불변하는 실체, 즉 자성(自性)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인간이나 사물들에는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人空], 그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들[法]마저도 불변하는 실체를 가지지 않으며[法空], 나아가 자신이 주장하는 공(空)에도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空空].
→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르주나가 사용하는 기본 전략은 단순하다. 그에 따르면 자성이 있다고 상정하는 모든 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비가 내리면 우리는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이 경우 비에 자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의 자성에 '내린다'는 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내리는 비가 내린다'는 것이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내리지 않은 비가 내린다'는 것이 된다. 전자는 '중복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후자는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비에게 자성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비가 내린다'는 표현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중복의 오류'는 '인중유과론', 즉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는 주장[常見]을 공격하는 논리이다. 반면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는 '인중무과론', 즉 원인 속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斷見]을 공격하는 논리이다.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공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작용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절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든지 간에,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도 상정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2) 바수반두, 집착을 낳는 심층 무의식,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을 끊으려는 노력

◇ 자아와 대상이란 용어의 용례들은 다양하다. 그것들은 모두 의식의 변형을 가리킨다. 그 변형에는 세 층이 있다. -
『유식삼십론(唯識三十論)』1
◇ 세 층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의 변형은 단지 [자아와 대상에 대한] 구별일 뿐이다. 이렇게 구별된 것은 [자아와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단순한 의식의 표상일 뿐이다.-
『유식삼십론(唯識三十論)』17

→ "단지 의식일 뿐이다"라는 표현인 '유식(唯識; vijñaptimātra)이란 개념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즉 마음만이 실재적이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창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오해되곤 했다. 그렇지만 바수반두(Vasubandhu; 世親, 320?~400?)에게서 의식(vijñāna)은 궁극적인 실재나 해결책이 아니라 차라리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할 문제이다. 바수반두는 한 개체가 어떻게 자성(自性)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치료책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수반두도 또한 나가르주나가 역설했던 '공(空)'의 논리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바수반두의 유식 불교는 자성(自性)에 집착하는 우리 의식에 대한 일종의 계보학(geneology)이라고 할 수 있다. 중관불교가 논리적으로 자성(自性)을 해체하려고 한다면, 유식불교는 자성에 집착하는 우리 의식의 메커니즘을 계보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병인(病因)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의식의 가장 심층에는 과거 경험들의 흔적을 수반하는 습관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뢰야식(阿賴耶識, ālaya-vijñana)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아뢰야식을 자아(ātman)로 착각하는 일종의 자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나식(末那識, manas)이 존재하며, 가장 표층에는 대상을 구별하는 여섯 가지 의식, 안식(眼識, cakṣur-vijñana), 이식(耳識, śrotra-vijñana), 비식(鼻識, ghrāṇa-vijñana), 설식(舌識, jihvā-vijñana), 신식(身識, kāya-vijñana), 의식(意識, mano-vijñana)이 존재한다.
→ 습관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알라야식, 즉 저장의식[藏識]이 최종적으로 작동하기를 그쳤을 때, 이 의식은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배제나 편견 그리고 기대나 집착 혹은 왜곡 없이 보고 반영하는 '위대한 거울 인식'(大圓鏡智;mahādarśajñāna)으로 바뀌게 된다. 인식하는 주체(grāhaka)와 인식된 대상(grāhya)이라는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정화된' 인식들은,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나르시스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지각하지 못하게 했던 자기중심적인 편견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직접적인 실제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의식이 종결될 때, 참다운 인식은 시작된다.